

'삼성 잡아라' LG-NC, 주중 잠실 3연전

등록 2021.05.18 10:57:57



[서울=뉴스시스]이영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KBO리그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4대3으로 승리한 LG 김현수가 류지현 감독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5.14. 20hwan@newsis.com

[서울=뉴스시스] 권혁진 기자 = LG 트윈스와 NC 다이노스가 선두 추격의 분수령이 될 3연전을 치른다.

두 팀은 18일부터 LG의 홈인 잠실구장에서 주중 3연전을 소화한다.

현재 1위는 22승15패의 삼성 라이온즈다. NC가 20승15패로 1경기 뒤진 2위에 자리하고 있고, 3위 LG는 20승16패로 NC를 반 경기차 추격 중이다.

NC는 최근 5연승으로 완전히 흐름을 탔다. 1위 삼성보다 오히려 기세가 좋다. 선두를 눈앞에 뒀던 LG는 지난 17일 삼성전에서 9회 뼈아픈 역전패를 당해 일단 상승세가 꺾였다.

키움 히어로즈와 주중 3연전을 갖는 삼성의 행보에 따라 선두권 기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두 팀 모두 총력전이 예상된다.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부산 주중 3연전은 최하위 탈출 싸움으로 관심을 끈다.

허문회 감독을 개막 30경기 만에 전격 경질하고 분위기 쇄신에 나선 롯데는 아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화 역시 18패에 빠졌던 지난 시즌 수준은 아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한화(14승22패)가 롯데(13승22패)에 반 경기 앞선 9위를 지키고 있다. 서서히 중위권과 멀어지고 있어 더 밀리지 않으

려면 서로를 넘어야 한다.

롯데가 수장을 래리 서튼 감독으로 교체하면서 카를로스 수베로 한화 감독과 외국인 사령탑 맞대결도 성사됐다.

두산 베어스는 KT 위즈와 원정 3연전을 치른 뒤 주말 안방으로 롯데를 불러들인다. 좀처럼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는 SSG 랜더스와 삼성을 차례로 만난다.



[광주=뉴스시스]류형근 기자 = 9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1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NC 다이노스의 경기, 5회초 1사 1, 2루에서 NC 3번타자 나성범이 2타점 3루타를 친 뒤 3루에 안착해 있다. 2021.04.09. hgryu77@newsis.com

월요일 경기를 치른 삼성, LG, 두산, SSG는 이번 주 7연전을 소화해야 한다. 선수단의 체력 관리와 선발 로테이션 조정이 성적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두산 베테랑 좌완 유희관은 100승 도전에 나선다. 시즌 초반 4경기에서 2패 평균자책점 9.60(15이닝 29피안타 16자책)으로 부진한 유희관은 5월 두 경기에서 2승 평균자책점 1.64(11이닝 14피안타 2자책)로 반전에 성공했다.

유희관이 1승을 보태면 두산 프랜차이즈로는 첫 번째이자 통산 32번째 100승의 위업을 달성한다.

◇이번주 KBO리그 일정

▲5월18일~20일

NC-LG(잠실) 키움-삼성(대구) 두산-KT(수원) SSG-KIA(광주) 롯데-한화(대전)

▲5월21일~23일

롯데-두산(잠실) LG-SSG(문학) KIA-삼성(대구) NC-키움(고척) KT-한화(대전)

